

사설

후마 바로 세우기는 경희를 바로 세우는 일

우리신문은 이번 호부터 후마니타스칼리지 기획 연재를 시작한 다. 경희 대표 브랜드인 후마가 설립 당시의 철학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되짚어보려는 취지다.

15년 전 출범한 후마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양교육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는 안팎의 찬사를 받으며 구성원의 자부심으로 자리잡았다. 후마의 영향으로 다른 많은 대학이 교양교육 혁신 작업에 나서며 교양교육에 대한 대학사회의 인식 자체가 변하기도 했다. 취업 중심으로 재편되던 대학 교육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인간과 사회, 세계를 성찰하는 교양교육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혁신’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그렇게 후마는 경희를 설명하는 대표 브랜드가 됐다.

그러나 학생들이 경험하는 오늘날의 후마는 출범 당시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 대학주보의 취재 결과, 학생들은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정체성 부재, 평가방식, 수업방식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에게서는 후마의 교육철학과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단지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 요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후마니타스’라는 이름과 제도는 남았으나, 구성원 사이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체감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후마의 본질을 되물게 하는 가장 단적인 예가 평가 방식이다. 현재 후마는 ‘인간의 가치 탐색’과 ‘빅뱅에서 문명까지’, 그리고 배분 이수 과목에서 A학점 비율을 45% 안으로 제한하는 상대평가를 채택하고 있다. 배움의 본질과 맞지 않는 평가 방식은 후마가 견지해오던 여러 가치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학생들은 협업 대신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정량화하기 어려운 가치까지 점수로 서열화되

는 현실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양캠 후마의 불협화음도 간과할 수 없다. 평가 방식을 개선하지 않는 목소리는 2017년 후마 내부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작년 총학의 주도로 절대평가 논의가 공론화됐으나, 양캠 후마는 또 다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대학주보는 취재 과정에서 건설적 논의보다 소모적인 대립이 이어진다는 인상을 짚게 받았다. 여기에 국제캠 후마 학장 선임 지연으로 인한 사령탑 부재와 학장의 교무위원 배제설 등 교내에서는 행정적 위상마저 약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후마가 여전히 우리 학교 교육철학의 핵심이며 오랜 시간 경희를 대표해온 브랜드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의 위기를 단순 교양교육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후마의 위기는 곧 우리학교가 구축해 온

정체성의 위기이며, 이를 바로 세우는 과정은 결국 경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일이 된다.

우리신문은 이번 연재를 통해 세 가지를 짚어볼 것이다. 먼저 구성원들은 지금 후마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현실을 진단하고, 후마가 어떤 이상으로 출발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돌아볼 것이다. 나아가 인공지능과 융복합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후마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살펴볼 것이다.

대학주보는 후마에 산적한 여러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후마의 성과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연재가 후마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는 실증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세시봉

사라진 공동체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척 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깜짝 놀랐다. 이제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지 않고 운동회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도교육청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 가운데 수학여행을 준비한 학교 비율은 서울 5%, 경기 7%, 대전 3%에 그쳤다. 운동회 또한 마찬가지다. ‘초교 운동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605개 중 106곳은 운동회를 열지 않았다. 운동장에서 흠뻑 땀을 뻘뻘 흘리며 뛰놀고, 버스에 올라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던 학창시절의 특별한 기억이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점점 낯선 일이 되어 가는 슬픈 현실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엔 현대사회에 질어진 개인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일부 부모들은 수학여행에서 자녀에 대한 특별 관리를 요구하고, 운동회는 경기에서 진 아이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 측은 행사 진행에 부담을 느껴 공동체 활동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물론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걱정하는 마음, 경쟁에서 밀린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우려가 공동체적 경험의 부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모든 갈등과 경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보호는 아니다. 갈등 속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도 교육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수학여행과 운동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다. 아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는 교실 의자에 앉아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가치다.

필자는 아직도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학창 시절 운동회와 수학여행 이야기를 나누어 준다. 그때의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배려와 성장이라는 가치를 배우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오래도록 지속될 삶의 태도를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동체적 가치를 배울 기회를 지켜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정보유출사고 막으려면

해커는 사실 나였나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지난달 20일 사이버대 학점교류강좌 ‘현대인의 생활법률’에서 우리 학교 학부생 123명의 개인정보가 조교 개인의 실수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우리는 통상 해킹 등 외부 공격이 원인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난해 SK텔레콤의 고객 정보 해킹 피해와 같은 대형 사건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2월 우리학교에서 학생 89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건 역시 인포 21이 외부 공격을 받아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원인은 사뭇 다르다.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 구성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유출이다. 정보처에 따르면 우리학교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가운데 내부 부주의로 인한 비율이 60%를 넘는다. 전국적으로도 작년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민간기

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약 60%가 내부자의 업무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정보처는 “내부자 업무 과실의 대부분은 학생에게 조금이라도 더 친절히 안내하려다 벌어져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학생이 직접 찾을 수 있는 정보임에도 더 쉽게 안내하기 위해 정보가 담긴 파일을 다루던 중 실수로 유·노출시키는 경우다.

정보 사고는 취급자 개개인에 의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다. 심지어 학생들이 운영하는 학생회나 동아리에서도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유출 경로도 다양하다. 개인정보 필터링, 숨김 처리 등 정보처에서 손을 쓰더라도 한계가 있다.

정보처는 의외로 편리함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단계를 약화시키자는 의견을 다수 받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개인에 의한 정보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편리성만을 위해 보호 단계를 간편화하는 건 위험 부담이 크다. 정보 보호에 대한 개개인의 의식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 대학 구성원 개개인의 높은 정보 윤리 수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만평 해킹만큼 위험한 개인의 부주의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